

“목숨을 걸어 지키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 진실이다”

## 전남도 동부권 통합청사 신축 속도...내년 말 준공

순천 신대지구에 387억 투입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

탄소중립 취지 맞춰 전남1호 탄소 제로 인증건물 건립

전남도가 여수·순천·광양 등 동부지역 도민에게 보다 나은 통합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목적 청사 건립에 속도를 내고 있다.

17일 전남도에 따르면 동부권 통합청사를 위해 하반기 착공해 2022년 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한다. 사업비 387억원을 들여 순천 신대지구 3만596㎡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지을 예정이다.

동부권 통합청사는 지난 2019년 입지 선정을 시작으로, 2050 전남도 탄소중립 취지에 맞춰 저탄소 녹색성장을 선도할 전남1호 탄소 제로(ZERO) 인증건물로 건립한다. 고기밀, 고단열 건축시스템을 추가 반영하는 등 오는 6월까지 실시계획을 완료할 예정이다.

통합청사 건립을 위해 기획에서부터 설계, 시공, 유지관리에 이르는 전 과정에 민간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있다.

지역커뮤니티 중심 역할을 하도록 대강당, 다목적강좌실, 열린회의실, 북카페 등 다양한 주민 편의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특히 스마트(영상)민원실 설치로 도청에 가지 않고도 민원을 처리하는 시스템 등 미래 행정수요에 적합한 기능을 갖추고,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치로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청사를 건립한다.

전남 동부권역은 순천, 여수, 광양, 고흥, 보성, 구례, 곡성 등 7개 시·군으로 전남 전체 면적의 35%를 차지하고 있다. 인구는 전체 인구의 47%인 90만여 명이다.

현재 동부지역본부 청사는 2005년 전남도청이 무안 남악으로 이전하면서 동부출장소로 출발했다. 2018년 8월 민선7기 들어 1본부 6과 24팀에 산림자원연구소까지 포함해 본부 체제로 확대 개편했다.

박현식 전남도 동부지역본부장은 “동부권 통합청사가 들어서면 도민과의 소통행정을 실현하는 등 민원 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정환기자



지리산국립공원 화엄사 홍매화 만개

16일 전남 구례군 마산면 지리산국립공원 화엄사 일원에 홍매화 꽃이 만개하며 화사한 봄 소식을 전하고 있다.

## ‘또 뚫린 광주공항’

지인 신분증 도용 탑승객 사흘간 몰라  
 최근 1년 사이 보안 사고 5건 잇따라  
 공군과 일부시설·부지 함께 사용 중  
 탑승 수속 보안 체계 강화 시급 지적



지인의 신분증을 도용해 광주공항에서 제주행 항공편을 이용한 20대 남성이 뒤늦게 적발됐다. 광주공항은 최근 1년 사이 항공기 보안 사고 5건이 잇따라 발생, 허술한 관리 실태가 도마위에 올랐다.

제주 서부경찰서는 지인의 신분증으로 구매한 항공권으로 비행기에 타려 한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로 2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제주시 용담이동 제주공항에서 지인의 신분증으로 광주행 여객기에 타려다, 공항 보안 검색대에 의해 적발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앞서 지난 6일 지인 신분증을 이용해 광주공항에서 발권한 제주행 비행기에 탑승, 이틀간 제주에서 머물렀다.

이 같은 사실이 뒤늦게 적발되면서 A씨가 광주공항에서 비행기에 탑승할 당시 신분증 도용 사실조차 확인하지 못한 광주공항의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다.

지자체부터 최근 1년 사이 광주공항에서는 항공기 탑승 수속 관련 보안 사고 5건이 잇따랐다.

올해 1월14일에는 친형의 신분증으로 제주행 비행기에 탑승하려던 60대 남성이 탑승 직전 보안 검색대에서 적발됐다.

앞서 지난해 12월에는 40대 남성이 수배자 신분증을 숨기려고 친구의 신분증·항공권으로 비행기에 타려다 탐미를 잡히기도 했다.

또 같은 해 7월과 10월 광주공항에서 친구와 언니의 신분증을 도용해 항공기에 탑승한 20대 여성과 초등학생이 제주까지 가기도 했다.

이들이 제주에 도착한 이후에도 광주공항은 신분증 도용 사실을 알지 못했다.

특히 광주공항은 공군과 일부 시설·부지를 함께 사용 중인만큼, ‘탑승 수속 보안 체계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기동취재본부

## 5·18 계엄군, 41년 만의 속죄

### 화해·치유 ‘첫발’ 디뎠다

당시 특전사 7공수부대원, 무고한 희생자 사살 증인 “유족에 씻을 수 없는 아픔 드러 죄송...죄책감 시달려”

“어떤 말로도 씻을 수 없는 아픔을 드러 죄송합니다. 용서를 바랍니다.”

지난 16일 오후 3시에 광주 북구 윤정동 국립 5·18민주묘지 내 민주주의 문 접견실.

5·18민주화운동 당시 진압 작전에 투입됐던 특전사 공수부대원 A씨가 자신의 총격으로 숨진故박병현(당시 25세)씨 유족 앞에서 무릎 꿇고 오열했다. A씨는 항쟁 당시 특전사 7공수 특전여단 33대대 8지역대 부대원이었다. 그는 1980년 5월23일 광주 남구 노대동 노대남제 저수지 부근을 순찰하던 중 젊은 남성 2명이 화산 방향으로 도망치는 것을 보고 부대원과 함께 총격을 가했다.

모두가 마을 속에만 묻고 살았던 40년 세월이 흐르고 난 뒤에야, A씨와 박씨의 유족이 마주할 수 있었다.

A씨는 “어떤 말로도 씻을 수 없는 아픔을 드러 죄송하다. 사과가 또 다른 아픔을 줄 것 같아 망설였다”며 유가족에게 큰절을 올렸다. 바닥에 엎드린 채 울먹던 A씨는 주변 사람들의 부축에 의지해 겨우 자리에 앉았다.

이후 그는 “40여 년 동안 죄책감에 시달렸다. 이제라도 유가족에게 용서를 구할 수 있어 다행이다. 용서해달라”고 거듭 사죄했다.

유족을 대표해 숨진 박씨의 형인 박종수(73)씨는 “용기를 내줘서 고맙다. 죽은 동생을 이제라도 편히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 “과거의 아픔을 다 잊어버리고 떳떳히 잘 살아가는 것이 서로 좋을 것 같다. 마음 편히 잘 살아달라”며 “죽은 동생을 다시 만났다는 마음으로 용서하고 싶다”고 A씨를 보듬었다.

A씨는 총격 당시를 “1개 중대 병력이 광주시 외곽 차단 목적으로 정찰 등의 임무를 수행하던 중이었다”며 “화산 방향으로 걸어가던 젊은 남자 2명이 공수부대원을 보고 도망을 쳤다. 정지를 요구했으나 겁에 질린 채 달아나길래 무의식적으로 사격을 했다”고 기억했다.

또 “숨진 박씨의 사망 현장 주변에선 총기 등 위험이 될 만한 물건이 전혀 없었다”며 “대원들에게 저항하거나 폭력을 행사한 사실도 없다. 단순히 겁을 먹고 도망가던 상황이었다”고 고백했다.

이는 “당시 계엄군의 총기 사용은 자위권 차원이었다”는 신군부를 비롯한 5·18 왜곡·편향 세력의 논리가 허구임을 뒷받침하는 진술이기도 하다.

최윤희기자

오늘의 한걸음, 미래의 행복백신

# 행복으로(로) 걷기 광산

## 시민 & 동아리 모집

이렇게 신청하세요

**개인 (주민)**

**W** ① 워크온 앱 설치 및 실행  
 ② 광산구 커뮤니티 그룹 **행복으로** 가입

**동아리 (5인 이상 단체)**

① 동행정복지센터 방문  
 ② 동아리 가입 신청서류 제출

문의 | 관할동 행정복지센터